

문화

# “예술작품 감상하며 차 한잔 하실래요”

“차 마시며 지역 작가들의 작품도 감상하세요.”

6일 오후 2시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인근의 버스 정류장에서 20대 젊은이 서너 명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찍고 있었다. 이들은 바코드처럼 생긴 이미지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QR코드’를 통해 인근에서 열리는 전시회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QR코드를 통해 맡아 드는 전시회를 고른 이들 젊은이들이 찾은 곳이 갤러리가 아니라 인근의 카페였다는 점이다.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씨와 인형작가 김현경씨의 전시회를 보기 위해 이들이 간 곳은 동구 호남동의 ‘홀썬빌리지’ 차와 음료수를 시킨 이들은 천천히 카페 안을 돌며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했다.

최근 광주 도심 갤러리와 식당 곳곳이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문화 명소가 탈바꿈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부지 인근에 위치한 이들 상가들은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홀썬빌리지’를 찾은 대학생 이상은(여·23)양은 “미술관이나 갤러리는 따로 시간을 내서 찾아가야 하는데, 카페에서 전시가 열리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차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6일 오후 광주시 동구의 카페 ‘홀썬빌리지’를 찾은 대학생들이 전시된 작품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옛 전남도청·도심 인근 16곳 카페 갤러리로 변신

### 지역작가 작품 전시·판매... QR코드로 위치 확인

이 같은 ‘카페 속 갤러리 만들기’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진행하는 2011 아시아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이다.

“그렇고 그런 사이에-도심 속 갤러리 프로젝트”를 타이틀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부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카페와 식당에서 전시회 등 문화 행사를 여는 것이다.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일종의 ‘예술 특구’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다.

또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전시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관람객들도 일상 속에서 작품을 감상하며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문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현재 다담·살롱 드 미자·소소한 밥상·플로리다·황톳길·까리노미네빌·6월의 사슴·버진스타·보틀·엠케이·홀썬 빌리지·다라쿠나·텐시·스위트 핑거·까페 파스타·장독대·쏘, 블루 등 16곳의 카페와 식당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업소에서는 오는 10월 말까지 강동호·고광입·김효삼·나예심·류현자·문형선·배다인·안희주·양인자·양재영·이이남·이다애·이건용·임선영·인준교·임병중·오용석·전명옥·주성범·홍현기씨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또 업소 성격에 맞게 이들 작가와 추가 전시를 협의 중이며, 참여 업소들 간의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을 주최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아시아문화사업단 관계자는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을 문화적으로 활성화시켜야 광주가 진정한 문화도시가 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현대옷 갈아입은 ‘아가씨와 건달들’

7~9일 문예회관 대극장



뮤지컬의 고전으로 꼽히는 ‘아가씨와 건달들’이 광주 공연을 갖는다. 7일(오후 7시30분), 8일(오후 3시·7시30분), 9일(오후 3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1950년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첫 선을 보인 ‘아가씨와 건달들’은 마틴 브란도와 진 시몬스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 초연됐고 16번이나 리바이벌됐다.

6년만에 다시 찾아온 ‘아가씨와 건달들’은 현대적인 옷으로 갈아입고 관객들을 만난다. 1920년대 미국이라는 시대와 배경을 고집하지 않고, 현재의 모습으로 재해석했다.

스토리는 네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다. 학박스 최고의 쇼걸 아틀레이드는 도박을 즐기는 자유로운 영혼의 네이슨과 결혼하기 위해 14년을 기다린 순정녀다. 행운을 쫓는 뉴욕 최고의 승부사 스카이는 네이슨과의 내기로 신앙심 투철한 선교사 사자를 유혹하려다 그녀와 예상치 못한 사랑에 빠지게 된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아가씨와 건달들’은 뮤지컬계에서 내공을 쌓은 배우들과 대중스타들이 어우러진 캐스팅이 눈에 띈다. 영화 ‘최종병기 활’에서 강한 인상을 심어준 뮤지컬계 스타 김무열과

드라마 ‘스타일’에 출연했던 이용우가 스카이역으로 출연하며 영화배우 진구와 이율이 네이슨역으로 함께 호흡을 맞춘다. 두사람과 사랑을 엮어 가는 아틀레이드 역으로는 옥주현과 김영주, 사려역으로는 정선아가 캐스팅됐다.

특유의 개성있는 무대를 만들어온 이진나씨가 연출을, 김문정씨가 음악 감독을 맡았다.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하는 루 카스트로가 만들어낸 안무도 작품의 핵심 포인트다. 티켓가격 12만1000원~5만5000원. 문의 1588-07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김연자와 함께하는 다문화 콘서트 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문화재단은 오는 9일 오후 4시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오감만족광주여행-김연자와 함께하는 다문화 콘서트’를 연다.

‘문화+관광+축제’ 등이 결합된 공연테마 여행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에는 일본인 관광객 400여명, 서울·수도권의 외래 관광객 200여 명 등 총 600여 명이 참가를 신청했다.

이번 콘서트에서 김연자는 가요



와 엔카, 팝송을 들려주며 공연이 끝난 뒤 간단한 팬미팅과 기념촬영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지역 출신인 김연자는 1980년대 후반까지 국내 트로트계 최

고의 여가수로 전성기를 누렸다. 1988년 서울올림픽 3대 주제곡으로 선정된 ‘아침의 나라에서’의 비히트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엔카(演歌)의 여왕’으로 추앙받을 만큼 성공을 거둔 자타공인 한류 1세대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공연 후 광주문화재단은 김연자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문의 062-670-74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스님과 시인 목객들이 한자리 모여

### 오늘 백양사 쌍계루서 담선회

고불총림 장성 백양사(주지 시몽스님)는 7일 오전 11시 담선회(談禪會)를 재현하는 행사를 갖는다. 담선회는 스님과 시인 목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취를 읊고 한담을 벌이는 일종의 토론회로 백양사 쌍계루는 아름다운 풍광으로 예부터 담선회 장소로 애용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낭송가 임희희씨가 포은 정몽주 선생의 ‘쌍계루’를 원운으로 낭송하고, 하서 김인후 선생의 후손인 김병호씨가 하서의 ‘쌍계루 차운시’를 읊는다. 보연 스님은 서용 종사의 ‘쌍계루 차운시’를 음영

한다.

또 영산회상곡을 관현악으로 연주하는 ‘향계 풀 풍류’와 우리나라 전통 가곡 합창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곡(편락·編樂)도 선보인다. 김은숙씨는 가야금 병창으로 ‘호남가’ 등을 부를 예정이다.

한편, 백양사는 이번 행사를 위해 전국 각지의 문인들에게 쌍계루 풍경을 주제로한 시를 공모했는데 모인 작품은 선별해 쌍계루 종건 때 현판으로 만들어 걸 예정이다. 문의 061-392-750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스티브 잡스 추모열기 관련서 인기

애플의 창업자이자 전 최고경영자인 스티브 잡스가 5일(현지시간) 세상을 떠나면서 국내 서점가에도 잡스의 추모 열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6일 교보문고와 예스24 등 주요 서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모 페이지를 열고 매장에 특별 코너를 설치해 추모 기획전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에 출간된 스티브 잡스 관련 도서는 아동·청소년 도서를 포함해 20여 종이 넘는다. 이 중 스티브 잡스라는 인물에 대해 알 수 있게 하는 책으로는 ‘스티브 잡스 이야기’(명진출판사 펴냄)와 ‘iCon 스티브 잡스’(민음사) 등이 있다.

김 코리건이 쓴 ‘스티브 잡스 이야기’는 잡스의 시련과 성공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쓴 책이고 ‘iCon 스티브 잡스’는 잡스의 창조성에 초점을 맞춰 윌리엄 사이먼과 제프리 영이 함께 집필한 평전이다.

‘아이 리더십’(웅진지식하우스)은 20여 년간 잡스와 함께 애플을 진두지휘했던 애플의 전 수석부사장 제이 엘리엇이 잡스 전편 집필가인 윌리엄 사이먼과 함께 쓴 책이다.

한편, 잡스의 첫 공식 자서전인 윌터 아이작슨의 ‘스티브 잡스’(가제·민음사 펴냄)는 오는 25일 세계 각국에서 동시에 출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한·중·일 음악인들과 함께

### 8일 영상예술센터서 교류 콘서트

한·중·일 음악인들이 함께 하는 교류 콘서트가 8일 오후 3시 광주 영상예술센터(옛KBS광주방송총국)에서 열린다.

중국팀으로는 피아노와 전자오르간을 전공한 심어송라이터 량징이 참여하며 일본에서는 3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도쿄 퓨전나이트’와 재즈와 삼바, 라틴 보사노바 음악을 추구하는 ‘Passing rain’이 무대에 선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해와 달’, 재즈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M4W1’, 기성곡을 다양하게 편곡해 연주하는 ‘그럭저럭’ 이황희 전남대교수 등 교수들이 주축이 된 ‘사이닝스톤즈’가 공연한다.

이번 한중일 교류콘서트는 사이닝스톤즈가 기획했다. 지난 1월 일본에서 한일 라이브 교류 공연을 가졌던 사이닝스톤즈는 중국까지 범위를 넓

혀 한·중·일 세 나라가 앞으로 지속적인 공연을 갖기로 하고 이번에 광주 공연을 추진했다.

참가밴드들은 이번 공연에서 ‘데스페라도’, ‘렛 미 고우 어웨이’ 등 팝송과 ‘세상모르고 살았노라’, ‘동화’ 등 각 나라의 대중음악을 들려준다.

3시간 동안 이어지는 공연 사이사이에 히로오카 모리호(일본 중앙대 교수), 김정훈(전남과학대 교수), 이황희, 김한수(동강대 교수)씨가 문화, 음식, 경제 등 각각의 키워드로 본 한·중·일 교류에 대해 이야기한다. 문의 010-3273-96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울 가을에도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 오찬정식 15,000원 ● 30년 전통의 한정식 : 25,000원부터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출플러스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외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 유·스퀘어사우나

# 24시

★ 각종 편의시설 : 수면실(침대)·피부샵(스포츠마사지)·인터넷·안마기·이용원·세신·세화

■ 위치: 유·스퀘어 광주종합터미널 2층 아이엘리시아 옆 ■ 주차안내: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 문의전화: 062) 352-4455